

말도 못하고 당하는 지적장애인...범죄 무방비 노출

광주서 폭행·협박에 1억5000만원 갈취 당하며 6년동안 '노예같은 삶' 장흥선 마을 주민 10여명에게 장기간 성범죄 피해 등 '범죄 사각지대' 사고능력 떨어져 피해 입증 어려워...전담경찰관 양성 등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폭행, 갈취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성범죄까지 장기간 지속됐지만 장애인들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범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발달장애인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이를 지원해주는 단체의 인력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공갈, 여전전금용범 위반,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폭행 및 협박을 해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B씨에게 '식당 일을 돕고 싶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갈취하면서 식당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2015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17차례에 걸쳐 67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392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2880여만원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식당 일이 어려워지자 대리운전을 하자며 B씨에게 수입자를 구매하게 해 이를 빼앗고, 명품시계를 사게 해 이것조차 갈취했다. A씨의 갈취로 생활이 어려워진 B씨는 식당을 접고 대리운전과 택시운전까지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은 당연히 수반됐다. B씨가 주는 돈이 적다는 이유였다. 온갖 물건과 주먹으로 40여차례 폭행을 가했고, B씨의 입에 모기약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특히 B씨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상황에서 더 쉽게 겁을 먹고 순응하는 경향이 있고 위력을 주는 말만으로도 강요나 지시에 무기력하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애정관계 등 상호 호감을 주기만 해도 쉽게 꼬

드김에 넘어갈 수 있어 범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항거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4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장흥 지적장애인 여성 성범죄 고소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마을 주민 십여 명이 50대 지적장애인 여성 C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제압당해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 범죄를 알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집하고 거리가 먼데 데려다 주지 않을까봐 저항하지 못했다', '시골동네서 소문이 퍼지면 나만 혼나니까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초등 수사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상황을 밝히고 구체적인 범행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사관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인력을 2.2배 증원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단순 온라인강의 수강으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실정이다.

또 조사지원 단체의 인력부족도 문제다. C씨의 조사때도 경찰은 규정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전문 단체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동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발달장애인은 인지·학습·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초등수사에서 질문을 잘못해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근과 우크라 갔던 완도 출신 30대 벌금형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인 이근 전 대위와 출국한 30대 유명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여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완도출신 A씨는 우크라이나가 여권사용제한 대상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 6일 폴란드로 입국해 육로로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UDT에서 같이 군생활을 한 이근 전 대위 등 총 3명이 함께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교부가 지난해 2월 12일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등의 사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사용제한 대상국가로 신규 고시한 점을 알고서도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된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근 전 대위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의사 아버지 부탁에... 처방전 없이 약 조제 약사 벌금형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임영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게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같은 시기 환자 13명에게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처방전이 없는 데도 전문의약품을 환자 6명에게 13회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특히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 병원 환자나 지인들에게 관절 소염제, 혈압약, 신경계 약 등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 물고기 200여마리 폐죽음 오염물질 비와 함께 유입 가능성

광주 서구청은 지난 1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치평교 하류 구간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물고기 사체 400여kg을 수거했는데, 폐사한 물고기는 대부분 붕어로 크기는 20~50cm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은 지난 14일 내린 빗물이 인근 도로에 쌓여 있던 오염 물질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순간적으로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집단 폐사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뭄으로 하천 물이 줄어 든 상황에서 14일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자, 오염 물질 농도가 치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린 비 양이 적어 오염 물질을 희석할 추가 유입수도 부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연태 기자 yjyou@kwangju.co.kr



시민들이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9주기...광주·전남 추모 열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16일 광주·전남에서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물결'의 추모 열기가 절정을 이뤘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주청소년애틀모임이 16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한 '기억하고 행동하는 광주시민 분향소'에는 시민들

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보고 아픔을 함께 했다. 추모객들은 노란 리본과 함께 메모지에 추모 글귀를 적어 부스 외부에 걸어 노랑 물결을 만들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9주기 목포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선언문 낭독

이 진행돼 9년 전 떠난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 팽목기억항에서는 '팽목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추념사와 기억의 낭송, 추모 노래 등으로 진행된 행사는 오후 4시 16분까지 펼쳐졌다.

앞서 15일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청소년 기억문화제'가 열려 희생자들을 기렸다.

한편 광주에서는 3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 등이 광주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다함께 안산까지' 행사에 참여해 4·16 생명안전공원, 단원고 기억교실 등을 방문했다.

/김대인 기자 kdi@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